




넷이벤츠, 아시아태평양 2010 프레스 서밋 개최

[입력날짜: 2010-05-17 10:45]

 스크랩  프린트하기  목록

[보안뉴스 길민권] 전세계 네트워크, 통신 및 보안 분야의 시장 동향을 소개하는 넷이벤츠 APAC 2010 Press Summit (<http://www.netevents.org/>)이 오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싱가포르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다.

이번 넷이벤츠 행사에는 시스코, HP, Vidyo, 타타커뮤니케이션, 티핑포인트, 스파이런트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한 약 10여개 벤더와 IDC, 프로스트&설리반, 가트너, 양키그룹 등 9개 시장 조사기관이 참석한다. 이들 기업 및 시장조사기관들은 이더넷 비즈니스, LTE, 가상화, IT 컨버전스, 통합 커뮤니케이션, 클라우드 보안 등 주요 업계 이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.

한편, 5월 20일과 21일의 컨퍼런스 세션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며 www.broadcast.netevents.tv와 보안뉴스(www.boannews.com)에서 시청이 가능하다. 이들 세션 발표 및 토론 영상은 컨퍼런스 후 2~3주 동안 계속 이용할 수 있다.

2002년부터 시작된 넷이벤츠 APAC Press Summit은 지금까지 7회에 걸쳐 개최됐으며 매년 네트워크, 통신 및 보안 분야의 선도 업체와 아태지역 주요 언론 등에서 약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. 특히 넷이벤츠 APAC Press Summit은 매년 업계의 최신 화두를 주제로 선정해 이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대안을 제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IT 포럼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.

[길민권 기자(reporter21@boannews.com)]